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명료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성경의 명료성'(다음 장이 30장이므로 29장으로 보임), 319~329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전통적인 성경의 네 속성(필요성·능력·명료성·충족성)을 여섯 개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를 두 묶음으로 나눈 뒤, 하나님의 세 가지 주권적 속성(다스림·권위·임재)과 짝짓습니다. 첫 묶음 가운데 능력과 권위는 앞 장들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짧게 되짚고, 이 장의 대부분을 명료성에 씁니다. 명료성 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이 단 단서들을 꼼꼼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명료성을 세 주권적 속성에 하나씩 비추어 봅니다. 다스림에 비추면 하나님의 소통은 실패하지 않으며, 명료성은 '선택적'입니다. 권위에 비추면 명료성은 우리에게서 핑계를 없애고, 아는 만큼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임재에 비추면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 절별 정리

📜 1. 성경의 속성, 여섯 개로 다시 짜기

개혁신학은 성경을 다룰 때 흔히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필요성, 능력, 명료성, 충족성입니다. 프레임은 '주권신학 시리즈' 전체를 하나님의 세 주권적 속성(다스림·권위·임재)에 맞춰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을 셋에 맞추기가 어려워 목록을 자유롭게 고쳤다고 밝힙니다. 그는 성경이 스스로 보증하는 속성이 원래 넷보다 많다고 봅니다. 앞에서 이미 권위, 영감, 무오성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그래서 넷을 여섯으로 늘린 데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다만 이것은 칼로 자르는 구분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라고 덧붙입니다. 첫 묶음 안에서 능력은 다스림·상황적 관점과, 권위는 권위·규범적 관점과, 명료성은 임재·실존적 관점과 짝을 이룹니다. 세 속성은 서로에게 기대고 있어서, 하나를 온전히 알려면 나머지 둘도 알아야 합니다.

1. 전통 속성 4개를 6개로 늘림
2. 1묶음: 능력·권위·명료성(성경 자체)
3. 2묶음: 필요성·포괄성·충족성(우리 삶)
4. 능력=다스림, 권위=권위, 명료성=임재
5. 세 속성은 서로 기대는 '관점적' 관계

> —
>
> 이 절은 성경 구절 없이 책의 구조와 분류 방식을 설명한다

📜 2. 능력과 권위: 앞에서 말한 것 되짚기

프레임은 9장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으로 이미 다루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선지자와 사도의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사람에게 복이나 저주를 실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생각해 볼 거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힘 있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과 147편은 기록된 말씀의 힘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힘에 은근히 견줍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16~28장에서 이미 논증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음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입으로 한 말과 똑같은 권위를 지닙니다. 그 권위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입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
2. 말씀은 성령으로 복과 저주를 가져온다
3. 성경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살아 있다
4. 기록된 말씀 = 하나님 음성과 같은 권위

이사야 6:9-10

말씀이 듣는 이에게 실제 결과(완고함)를 낳는다는 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마태복음 13:10-17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이를 가르는 힘을 지님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

로마서 1:16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6:25

복음 선포가 신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이름 (원문 '전 1:5'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오기로 보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신자 안에서 일함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12

말씀은 살아 있고 힘 있게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시편 19:7-9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힘

[7]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디모데후서 3:15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편 19편

창조 세계의 계시와 율법을 나란히 두어 말씀의 힘을 창조의 힘에 견줌

시편 19장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시편 147:15-20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나란히 놓음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 꼼꼼히 읽기

프레임은 명료성의 고전적 표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을 가져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쉽지도, 모두에게

있다. 프레임은 이 문장이 단서를 신중하게 단, 섬세한 진술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고백은 평신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으려던 당시(1640년대 무렵) 로마 교회를 겨냥합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가 혼자 해석하면 엉뚱하고 이단적으로 읽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고백이 혼자 제멋대로 하는 성경 공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를 전문가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해를 넘는 신비가 있습니다. 원어와 문화 배경을 알아야 풀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할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보통의 수단'에는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가르침은 로마 교회처럼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고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가 가르친 교사보다 더 깊이 자랄 수 있게 이끄는 길입니다. 기도와 성령도 모든 신자가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읽을 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해는 학력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1. 성경 모든 부분이 똑같이 쉽진 않다
2. 구원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3. 로마 교회의 평신도 성경 금지를 겨냥
4. '보통의 수단': 설교·가르침·기도·성령
5. 이해는 학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 **신명기 8:3**
>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은 모두를 위한 것
>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시편 19:7**
>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음
>
>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평범한 신자의 모습

시편 119장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마태복음 4:4

예수님이 신명기 8:3을 인용 —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4.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단서

고백서는 이런 수준의 명료함을 성경 전체가 아니라 '구원에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에 한정합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이 책 앞부분(24, 25, 27장)에서 '구원 문제'와 '우주·역사·과학 문제'를 나누는 생각에 반대해 왔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좁은 의미의 구원에만 있어서 다른 문제에는 권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자체가 삶 전체를 품을 만큼 넓기 때문에, 구원과 다른 문제를 날카롭게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과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는 것'은 정당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모른다고 지옥에 간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구원받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 고백서의 구분은 프레임이 반대해 온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각주에서 그는 더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어려서 죽은 택함 받은 아이는 무엇도 명제로 믿지 못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 그러므로 1장 7절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곧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믿을 만한 고백'의 내용을 말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명료성을 보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고백서를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1. 프레임은 '구원 vs 기타' 구분에 반대
2. 성경 목적을 좁게 정의할 수 없다
3. 그래도 '구원에 꼭 필요한 최소'는 있다
4. 속죄제·속건제 차이를 몰라도 구원받음
5. 1장 7절=성인의 '믿을 만한 고백' 기준

> **누가복음 18:15**
> (각주, 고백서 10장 3절의 증거 본문) 예수님께 나아온 어린아이들 — 유아 구원 논의
>
>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 **사도행전 2:39**
> (각주, 같은 증거 본문) 약속이 너희 자녀에게도 있음
>
>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 **누가복음 1:41, 44**
> (각주) 태중의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음 — 명제적 지식 없이도 거듭남이 가능함을 시사
>
> **누가복음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 **누가복음 1: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 5. 다스림과 명료성: 하나님의 소통은 실패하지 않는다

프레임의 첫 논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소통을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소통하려 하시면 언제나 성공하십니다. 성공한 소통이 곧 명료성입니다. 불분명한 말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뜻하신 목적을 이룹니다(이사야 55:10-11).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프레임의 궁극적 대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사야 6:9-10)에서 말씀은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마태복음 13:10-15). 같은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고,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춥니다. 그래서 명료성은 '선택적'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소통하려 하신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이 선택성에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경이 늘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비유 설명을 따로 들어야 했습니다(마태복음 13:18-23). 여섯 살 아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만 신앙고백이 진짜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보통의 수단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살에 얻는 사람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권적 선택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은 본문을 밝혀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참되다고 확신시키시며,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42장의 '내적 증거'에서 다룬다고 예고합니다). 각주에서 그는 경계선이 깔끔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자연계시는 불신자에게도 분명하지만 그들이 억누르고, 예수님을 반대한 바리새인들도 그분의 말씀을 반응할 만큼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1. 하나님의 소통은 늘 성공한다
2. 성공한 소통=명료성
3. 명료성은 '선택적'이다
4. 신자 안에서도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
5.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 **이사야 55:10-11**
>
>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을 이룬다 — 명료성 논증의 중심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6:9-10

말씀이 오히려 둔하게 함 — 이해하지 못함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마태복음 13:14-15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해 비유의 이유를 설명

[14]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0-13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에게는 허락되고 바깥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음 — 선택적 명료성

[10]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18-23

(각주) 제자들도 비유 설명이 필요했음 — 신자 사이의 이해 정도 차이

[18]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1:20

(각주) 자연계시는 불신자에게도 분명하지만 억눌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6. 권위와 명료성: 핑계할 수 없고, 아는 만큼 책임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길 의무입니다. 말씀이 명료하다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핑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잘못 알아들었다거나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료성은 윤리적 교리입니다. 로마서 1:20은 자연 속 계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요한복음 5:39-40). 동시에 앎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고, 모르고 잘못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누가복음 12:47-48). 현대 법처럼 '법을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는 아니지만 정상참작 사유는 됩니다. 이 원리는 사람마다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 살 아기는 성경 내용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아기에게 의식적인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두 살쯤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에베소서 6:1)는 말을 알아듣고, 그만큼 책임을 집니다.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훔치지 말라는 것, 남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가 커질 때마다 책임도 커집니다. 여섯 살 아이는 레위기 제사법을 몰라도 됩니다. 구약학자가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각

그러나 명료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신에 관한 사변적 호기심을 채워 줄 만큼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실천적으로 충분합니다.

1. 명료성=순종하지 않을 핑계가 없음
2. 명료성은 윤리적 교리다
3.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4. 이해의 크기=책임의 크기
5. 사변적 호기심용 명료성은 아니다

> **로마서 1:20**
> 자연계시가 분명하니 핑계 못함 — 기록된 말씀에도 같은 원리
>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요한복음 5:39-40**
> 성경을 연구하고도 예수님께 오지 않음 — 지식이 핑계를 없앰
>
>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누가복음 12:47-48**
> 알고 행하지 않은 종은 더 큰 책임 — 앎의 정도에 비례하는 책임
>
>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 **로마서 1:18-32**
>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음
>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에베소서 6:1

두 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 나이에 맞는 이해와 책임의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충분히 명료하다"

📜 7. 임재와 명료성: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신다는 것

개인마다 다른 명료성은 세 번째 주권적 속성인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30:11-14에서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고, 하늘이나 바다 건너에 있지 않고 네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먼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신명기 31:9-13의 율법 보관과 낭독 명령). 레위인은 칠 년마다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어 주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 마음에 새기게 해야 했습니다(신명기 6:6-9). 비유적으로도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랴, 누가 바다를 건너가랴"라는 질문에는 엄청난 노력 없이는 말씀을 알지도 지키지도 못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부정하십니다. 너희는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5-9에서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 순종을 말하는 모세의 말을 은혜로 비튼 것일까요? 프레임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가리킵니다(요한복음 5:39-40, 그리고 십계명 서문의 구원 선언). 신명기 30장도 이스라엘에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주권적 속성은 늘 함께 일합니다. 말씀 속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자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신명기 30:15-20).

1. 말씀은 멀지 않고 입과 마음에 있다
2.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정기 낭독됨
3.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가정을 부정
4. 바울: 가까운 말씀=복음 속 그리스도
5. 명료성은 결국 은혜의 문제다

> **신명기 30:11-14**
>
> 말씀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 — 명료성과 임재의 중심 본문
>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 **신명기 31:9-13**
>
> 율법책을 맡기고 칠 년마다 낭독하라 — 말씀이 문자 그대로 가까이 있음
>
> 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6:6-9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 일상 속에 가까운 말씀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30:12-13

"누가 하늘에 올라가랴" —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나님이 이를 부정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로마서 10:5-9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용 — 명료성=그리스도의 임재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라

요한복음 5:39-40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언 — 바울의 해석이 왜곡이 아님을 뒷받침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신명기 30:15-20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 백성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음 — 세 속성이 함께 일함

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말씀의 명료성은 다름 아닌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경이 전하려는 뜻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성경의 성질입니다.

성경의 속성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지니는 고유한 특징들입니다. 프레임은 능력·권위·명료성·필요성·포괄성·충족성 여섯 가지를 꼽습니다.

주권적 속성(다스림·권위·임재)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보여 주는 세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기준이 되시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세 관점(규범·상황·실존)

같은 대상을 '기준', '처한 형편', '사람의 내면' 세 방향에서 보는 프레임의 방법입니다. 셋은 따로 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서로를 품습니다.

보통의 수단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통로입니다.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 성경 읽기, 기도, 성령의 도우심 등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참되다고 확신시키시며,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선택적 명료성

성경의 분명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알게 하려 하신 사람에게 분명하다는 프레임의 표현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명료성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나이·성숙도·소명에 따라 이해의 깊이와 책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고백

교회가 어떤 성인을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확인하는, 그 사람의 신앙고백이 진짜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자기 계시이고, 특별계시는 말씀(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입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은 능력·권위·명료성을 지니며,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권위·임재와 짝을 이룹니다.
- 하나님의 소통은 실패하지 않으므로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분명함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택적' 명료성입니다.
- 성경은 각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에 언제나 충분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고, 아는 만큼 책임집니다.
-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며, 명료성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7편 ·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나 · 필요성과 명료성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